

# 2020년도 제3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616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출일자 : 2020년 6월 5일
4. 회부일자 : 2020년 6월 10일

### II.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1. 제안이유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극복,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을 위해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 2.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

-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4조 7,067억 9천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42조 4,677억 7천 1백만원에

대비하여 5.3%(2조 2,390억 2천 2백만원)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조 2,736억 8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1조 8,924억 7천 9백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조 4,331억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3,465억 4천 3백만원) 증가하였음.

### <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계	44,706,792,841	42,467,771,092	2,239,021,749	5.3
일 반 회 계	32,273,685,724	30,381,207,149	1,892,478,575	6.2
특 별 회 계	12,433,107,117	12,086,563,943	346,543,174	2.9

### 3.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20년도 제3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당초 8,311억 1천 4백만원에서 2,804억 9백만원(33.7%)이 증가한 1조 1,115억 2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 경제정책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계	1,111,523	831,114	280,409	33.7%
일반회계	1,105,987	825,584	280,403	34.0%
도시개발 특별회계	4,036	4,030	6	0.2%
균형발전 특별회계	1,500	1,500	0	-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804억 3백만원이 증가(34%)한 1조 1,059억 8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으로 각각 2,792억 1천 9백만원, 17억 5천만원이 증액됨.
  -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감면에 따라 개포디지털혁신파크와 마포 농수산물시장 사용료를 각각 9백만원, 5억 5천 7백만원 감액되었음.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재원별 매칭비율에 따라 지방채 추가 발행을 위해 600만원 증액하면서 40억 3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세출 예산은 당초 6,589억 9천 3백만원에서 3,961억 8천 6백만원이 증가한 1조 551억 7천 9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경제정책실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계	1,055,179	658,993	396,186	60.1%
행정운영경비	1,432	1,432	-	-
재 무 활 동	187	187	-	-
사 업 비	1,053,560	657,374	396,186	60.3%

-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7개 사업에서 3,756억 5천 3백만원, 서울 경쟁력 강화를 위한 6개 사업에서 155억 1천 1백만원, 코로나19 손실보전을 위한 2개 사업에서 50억 2천 2백원이 증액되었음.

### Ⅲ.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가. 편성 배경

-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으로 세계경제의 침체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글로벌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
- 국내 경제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분기의 극심한 경기 침체가 2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 산업의 생산증가율이 모두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68.6%, 2020.4)을 기록하였고, 수출 또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는 등 경기 하방 국면이 본격화되고 있음.
- 다만, 5월 이후에는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심리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 등으로 위축되었던 가계소비와 기업투자 심리가 일부 개선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조금씩 살아나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적극 살려나가기 위해 35조 3천억원 규모의 제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2020.6.4.).

- 이번 추경은 경기대응 투자여력 확보(11조 4천억원)와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경기보강 패키지(18조 9천억원)로 구성되어 있음.
- 서울시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 장기화에 대비하고 포스트 코로나와 생태문명 전환사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기정예산 대비 2조 2,390억원 증액(5.3%)된 44조 7,067억 9천만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
- 공공 및 뉴딜일자리 창출(3,022억원), 그린뉴딜 활성화(750억원), 스마트 시티 실현(573억원), 경기부양 SOC투자 확대(810억원), 코로나19 손실보전(846억원), 재난관리기금 적립(1,583억원), 스타트업 기업 육성(658억원), 로컬 자생력 강화(303억원), 자치구 및 교육청 등에 대한 법정 의무경비(1조 2,219억원) 등 총 2조 5,270억원을 증액하고, 세출사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2,880억원을 감액하였음.

## 나. 경제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 (1) 세 입

- 2020년 제3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총 1조 1,115억 2천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04억 9백만원(33.7%)이 증액되었음.

- 일반회계는 개포디지털 혁신파크와 마포농수산물 시장 사용료로 5억 6천 6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이 2,809억 6천 9백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2,804억 3백만원이 증액되었음.

**<경제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 경 사 유
합 계	282,317	1,914	280,403	
211-02 공유재산임대료	1,348	1,914	△566	
개포디지털 혁신파크 사용료	30	39	△9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감면(6개월분)에 따른 세입 감소분 감액 조정
마포농수산물 시장 사용료	1,318	1,875	△557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감면(6개월분)에 따른 세입 감소분 감액 조정
511-01 국고보조금	280,969	0	280,969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279,219	0	279,219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국비 신규 반영(국비 9 : 시·구비 1)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1,750	0	1,750	°농림부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신규 반영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재원별 (국30 : 시30 : 정부자금채40) 매칭비율에 맞춰 정부자금채(23억 6백만원) 보다 과소 편성(23억원)된 6백만원을 증액하였음.

< 경제정책실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변경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 경 사 유
합 계	2,306	2,300	6	
611-01 정부자금채	2,306	2,300	6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 장 시설현대화	2,306	2,300	6	지방채 추가발행에 따른 세입 반영

- 개포디지털 혁신파크와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사용료(△5억 6천 6백만원)를 감액하는 것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료 인하운동의 민간 확산을 견인하고자 “공공 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의 6개월분의 50% 인하분을 보전하는 것임.
-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2,792억 1천 9백만원)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17억 5천만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농산물 소비감소 등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과 임산부 건강증진을 위해 국고보조금이 증액(2,809억 6천 9백만원)된 것임.
- 코로나19로 실업과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학교 개학 등이 미뤄지면서 친환경농산물 수요 감소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일자리 확대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의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지원대책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임.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정부자금채 보충은 당초 매칭비율에 따라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과소 편성된 것이므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2) 세 출

- 2020년 제3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총 1조 551억 7천 9백만원으로, 총 15개 일반회계 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3,961억 8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경제정책실 소관 추경안 세출 편성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 경 내 역
합계		(X280,969) 684,960	(X0) 288,774	(x280,969) 396,186	
경 제 정책과	서울형 R&D 지원	48,578	46,278	2,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이오 R&amp;D 지원(2,000백만원)</li> <li>▪블록체인 사업화 지원(300백만원)</li> </ul>
경 제 정책과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65,175	57,548	7,6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메이드 뮤지엄 조성 및 운영 (3,677백만원)</li> <li>▪온라인 판로 강화(2,950백만원)</li> <li>▪K-Bio 해외진출지원(1,000백만원)</li> </ul>
경 제 정책과	중소기업 단체협력 강화	4,265	3,865	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 PL 보험료 지원(100백만원)</li> <li>▪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 지원(300백만원)</li> </ul>
경 제 정책과	서울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	7,245	4,909	2,3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핀테크랩 2개층 확대 (2,336백만원) ※70개→100개</li> </ul>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경내역
일자리 정책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x279,219) 356,006	(x0) 55,262	(x279,219) 300,7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단기 공공일자리로 흡수, 고용충격완화 및 생계유지 기반마련</li> </ul>
일자리 정책과	서울형 뉴딜일자리 확대	100,264	88,482	11,7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 이후 新산업의 새로운 형태 일자리를 뉴딜일자리와 연계</li> </ul>
일자리 정책과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	4,736	3,636	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형 강소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시 근무환경개선금 확대지원</li> </ul>
투 자 창업과	서울창업허브 운영	29,772	19,772	1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망 스타트업 성장촉진 종합 패키지 지원(100개사, 각 1억원)</li> </ul>
투 자 창업과	동북권 창업센터 운영	2,548	2,348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문제 해결 위한 유망 스마트 기술 기업육성 및 글로벌 진출 집중지원(10개사, 20백만원)</li> </ul>
투 자 창업과	스타트업 기술인력 인건비 지원	50,500	0	50,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 이후 성장가능성 높은 분야의 스타트업 집중 지원 (10,000명, 5개월)</li> </ul>
도 시 농업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x1,750) 3,500	0	(x1,750) 3,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여 코로나 피해농가 지원 및 임산부 건강 등 사회적 가치 제고</li> </ul>
도 시 농업과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 지원	4,022	0	4,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수산식품공사의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6개월분)에 따른 수입 감소분 보전</li> </ul>
산업거점 활성화반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	15,382	14,932	4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세한 스타트업 등에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고성능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SI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 도모</li> </ul>
산업거점 활성화반	서울무역전시장 운영	1,000	0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로 상반기 SETEC 미운영에 따른 운영적자 손실보전 필요</li> <li>※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시설</li> </ul>
도 시 제조업 거점반	스마트앵커 조성	2,537	2,312	2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봉 임대산업시설 기부채납 ('20.7월)에 따른 메이커스페이스 시설물 관리</li> </ul>

## 2. 주요 사업 검토

### 가. 서울형 R&D 지원

(사업별설명서, 1쪽)

- 코로나19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방역·의료기기 분야와 비대면 서비스 증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블록체인 분야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하고자 23억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 < 서울형 R&D 지원 >

(단위 : 천원)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증액내역
46,278,244	48,578,244	2,300,000	■ 민간위탁금 2,300,000

- 이 사업의 수탁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기술개발 및 상용화, 유망 분야(바이오·의료, AI 등)의 사업화 촉진, 판로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등으로 중소벤처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 2019년(예산 352억 5천 7백만원)에는 488개 기업을 지원해 매출유발 803억원, 고용창출 409명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
- 2020년에는 기술상용화 지원 규모 확대(과제당 3억원→5억원), 서울시 사업과 R&D 연계(창업시설 입주기업 제품화 지원, 캠퍼스타운 기술매칭 사업), 산업거점 육성(홍릉, 양재 G밸리), 테스트베드 활성화를 위해 전년보다 123억 3천만원이 증액된 462억 7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 서울형 R&D 지원 사업 개요 >

(단위 : 백만원)

분 야	단 위 사 업	2019년			2020년		
		계속	신규	예산 집행액	계속	신규	예산액
<b>총 계</b>		25	239	35,257	28	300	46,274
기술상용화 지 원	중소기업 기술상용화 지원 사업	-	141	4,985	-	154	7,700
	창업시설 입주기업 제품화 지원	-	-	-	-	15	1,500
	캠퍼스타운 기술매칭 사업	-	-	-	-	1	1,800
거 점 지 역 R & D 지 원	홍릉 클러스터 조성 바이오·의료 R&D	-	12	3,091	12	12	6,000
	양재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R&D	-	10	2,880	-	13	3,900
	G밸리 내 산업 간 융·복합 R&D	-	11	999	-	10	2,000
	동대문상권 활성화 위한 프로젝트	-	6	1,100	-	8	2,000
첼 린 지· 테스트베드 지 원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	27	9,921	-	40	12,000
	서울글로벌첼린지 개최	-	-	-	-	15	1,750
	서울혁신첼린지 개최	16	32	2,640	16	32	2,640
기술개발 교류촉진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개발	2	-	882	-	-	-
	서울시산학연협력포럼 활성화 사업	1	-	200	-	-	120
	재외한인과학자 학술 포럼 개최 지원	-	-	50	-	-	80
스 마 트 시 티 구 현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지원	5	-	2,800	-	-	-
	태양광 활용 기술개발 지원	1	-	2,000	-	-	-
	도시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지원	-	-	-	-	-	-
과제관리 /운영비	서울형 R&D 지원	-	-	3,604	-	-	4,681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	-	105	-	-	103

- 하지만, 코로나19의 발생으로 방역과 의료기기 분야의 수요가 급증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 선호도가 급변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이번 추가경정예산 23억원과 사업시기 조정과 예산 절감으로 추가 확보한 18억원 등 모두 41억원의 예산으로 방역·의료기기, AI 활용 비대면 및 방역, 핀테크, 블록체인 분야에 대한 기술사업화 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 < 서울형 R&D 지원 추가 사업 >

사 업 명	'20년 사업비 (단위:백만원)	주요내용
계	4,100	
방역의료기기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2,000 (전액 추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서울 소재 바이오기업</li> <li>● 지원분야 : 방역 의료기기(진단키트 등), 스마트 헬스케어, 원격 의료서비스 등</li> <li>●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2억원, 10개 과제</li> </ul>
AI 활용 비대면 및 방역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700 (글로벌챌린지 사업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중소·벤처·창업기업</li> <li>● 지원분야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AI 기반 비대면, 방역 활용기술</li> <li>● 지원규모 : 과제당 1~2억원, 4~5개 과제</li> </ul>
핀테크 코로나 관련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800 (계약심사 절감 680, 산학연포럼활성화 120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서울 소재 핀테크 기업</li> <li>● 지원분야 : 코로나19 이후 수요증가한 간편결제, 보안, 클라우드컴퓨팅 등 핀테크 기술</li> <li>●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2억원, 10개 과제</li> </ul>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600 (추경 300, 글로벌챌린지 사업비 변경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중소·벤처·창업기업</li> <li>● 지원분야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비대면, 인증 보안 등 블록체인 사업화가 필요한 기술</li> <li>● 지원규모 : 과제당 60백만원, 10개 과제</li> </ul>

- 이 사업은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으로 방역·의료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비대면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시장 선점을 위해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R&D 사업은 과제의 선정, 단계별 평가와 심사 등으로 사업자 선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고, 기존 R&D 사업 업무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연내 집행 가능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과제 심사절차의 간소화와 추가 인력의 투입 등 집행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또한, 방역·의료기기, 핀테크, 블록체인 분야의 지원사업은 2022년 까지 지속할 계획이므로 지원대상을 계획과 같이 개발후기기업(기술 성숙도TRL<sup>1)</sup> 7단계~9단계)에 한정하지 말고 개발중기기업(TRL 4단계~6단계)으로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나.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사업별설명서, 6쪽)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제품 홍보와 판로 지원을 위해 서울산업진흥원 출연금 76억 2천 7백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

(단위 : 천원)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증액내역
57,548,100	65,175,100	7,627,000	■ 출연금 7,627,000

- 증액된 출연금은 서울메이드 뮤지엄 조성 및 운영(36억 7천 7백만원), 온라인 판로 강화(29억 5천만원), K-Bio 해외시장 진출 지원(10억원)으로 편성 되어 있음.

1) 미국 NASA에서 1989년에 특정한 기술의 숙성 정도를 평가하고 다른 유형의 기술 숙성 정도와 비교 하기 위하여 개발한 체계적인 측정 기준으로 기초연구단계(1·2단계)-실험단계(3·4단계)-시작품단계(5·6단계)-실용화단계(7·8단계)-사업화단계(9단계)로 구성됨.

## (1) 서울메이드 뮤지엄 조성 및 운영

- 진흥원은 구(舊) 을지로청사에 서울메이드 제품을 체험·전시·판매하고 서울메이드 기업과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35억원을 투입해 서울메이드 뮤지엄을 조성할 계획임.

### < 서울메이드 뮤지엄 개요 >

- ▶ 위치 : 중구 을지로1가 63
- ▶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박물관)
  - ※ 그레뱅 뮤지엄 운영 : '15.7.~'20.4 (사업자 퇴거 및 원상복구 완료)
- ▶ 조성비용 : 총 35억원
  - [공간 기획/설계 1.5억원, 공사 33억 5천만원(1,340평×2,500천원)]
- ▶ 규모 : 지상5층, 지하1층 / 연면적 4,419.55㎡(1,340평)
- ▶ 층별 구성

5층 (235.97㎡)	[문화·예술·관광 콘텐츠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 ]
4층 (924.09㎡)	▶ (예비)스타트업(40개社)을 위한 사무공간 및 회의실 제공 ▶ 한류 등 연계 서울메이드와의 문화융합 프로젝트 지원 등
3층 (924.09㎡)	[코워킹 스페이스] ▶ 서울메이드 기업, 유관기관 등 네트워킹 공간 ▶ 북카페
2층 (924.09㎡)	[뮤지엄, 플래그십 스토어, 기념품샵, F&B 등] ▶ 서울메이드 브랜드 및 제품 체험 공간 ▶ 사후 면세점
1층 (924.09㎡)	▶ 서울메이드 홍보·프로모션 및 문화·예술(전시, 공연 등) 프로그램 운영

- 서울메이드 뮤지엄은 서울기업과 제품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서울메이드(SEOUL MADE) 브랜드의 성격과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플래그십 스토어(flagship store)<sup>2)</sup> 역할을 하며, 추가적으로 기업 지원을 위한 협업

2) 플래그십 스토어(flagship store)는 어떤 브랜드의 주력 상품을 홍보·판매하는 가게임.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특정 상품 브랜드를 중심으로 하여 브랜드의 성격과 이미지를 극대화한 매장으로, 브랜드의

공간과 보육시설을 포함하고 있음.

- 서울메이드 뮤지엄은 중소기업 판로지원 시설인 국제유통센터(강서구 등촌동 소재)보다 접근성이 뛰어나, 서울메이드 브랜드 기업과 제품의 출시와 홍보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기업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박물관과 관련이 없음에도 뮤지엄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혼선을 주고 있고, 서울메이드 홍보와 연관성이 없는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스타트업을 보육하는 등 기능 역시 체계적이지 못한 문제점이 있음.
  - 현재 구(舊) 을지로청사는 전층(지하 1층, 지상 5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박물관)’로 되어 있으나, ‘주거업무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관할 구청(중구청)에 신고만으로 가능함.
- 따라서, 건물의 기능 확정과 공간 기획시에 서울메이드 뮤지엄의 기능과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구(舊) 을지로청사의 역사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또한, 그동안 진흥원이 운영했던 오프라인 매장들이 대부분 매출과 실적 부진으로 종료되었고, 인접한 서울시청 지하의 아이마켓유(I·MARKET·U) 매장이 있다는 점에서, 구(舊) 을지로청사의 위치(도심

---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그 브랜드의 각각 라인별 상품을 구분해서 소비자들에게 기준이 될 만한 트렌드를 제시하고 보여줌.



소재)와 역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로지원 시설과 스타트업 사무공간 등으로 조성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재검토가 필요함.

- 구(舊) 을지로청사에는 유명인을 모델로 한 밀랍인형을 주로 전시하는 그레뱅뮤지엄이 2015년 7월에 개관하였으나, 매출 부진으로 2020년 4월에 폐업하였고, 경제정책실 내에서 시설 사용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메이드 뮤지엄만 접수되었음.

## (2) 온라인 판로 강화

- 온라인 판로 강화를 위해 온라인 상품 기획전 개최, 라이브커머스<sup>3)</sup> 활성화 지원, 인플루언서(Influencer)<sup>4)</sup> 판매자 양성 및 인프라 구축을 신규 사업(29억 5천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임.

### < 온라인 판로 강화 세부사업 >

■ 코로나19 극복 온라인 판매 기획전 (유통플랫폼 30개사×5천만원)	1,500백만원
■ 코로나19 극복 라이브커머스 제작 지원	200백만원
■ 코로나19 극복 오프라인 연계 프로모션	290백만원
■ 동영상 콘텐츠 활용 온라인몰 구축 및 운영	85백만원
■ 온라인 신유통 활용 판매 지원	500백만원
■ 인플루언서 판매자 양성 교육	25백만원
■ 인플루언서 판매자 전용 스튜디오 조성	300백만원
■ 인플루언서 중소기업 우수상품 소싱 지원	50백만원

3)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로 TV홈쇼핑과 달리 시청자와 소통하는 양방향으로 방송함.

4)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수십만 명의 구독자(팔로어)를 보유한 'SNS 유명인'을 의미함. 이러한 인물이 전달하는 정보를 기업이 활용하여 홍보하는 것을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부르고 있음.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동영상 콘텐츠 중심의 온라인몰과 방송스튜디오를 구축하고, 진흥원에서 양성한 인플루언서 판매자를 중소기업과 연결해 온라인 판매망으로 제품을 홍보·판매하게 할 예정이다.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매 역량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으나, 온라인 판매 전문인력과 경험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는 점에서 온라인 판로 강화는 유용한 지원방안이 될 수 있음.
- 다만, 진흥원은 별도의 사업으로 중소기업 등의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기존 사업의 조정으로 신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요건인 시급성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최근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홍보가 비용대비 효과가 크지 않고, 과대·허위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해 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3) K-Bio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수요가 증가한 바이오·방역 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에 ‘서울메이드 방역키트’ (이하 ‘방역키트’)를 제작·배포(10억원) 할 계획임.

- 방역키트는 손소독제 등 생활방역에 필요한 물품과 게임쿠폰 등 재택생활에 유용한 콘텐츠로 구성되며, 10만개를 제작해 미국과 이탈리아 등에 우선 배포할 예정이다.

### < 서울메이드 방역키트 개요 >

- 구성: 생활방역에 필요한 K-방역제품(손소독제, 한지마스크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자택생활 중 유용한 K-콘텐츠(게임 등 디지털체험쿠폰)



<서울메이드 방역키트 패키징>

- 규모 : 방역키트 10만개(1개 7천원)
- 배포처 : 미국 뉴욕 '마운트 시나이 아이칸 의과대학' 연계하여 방역키트 1만개 우선 배포, 미국 샌프란시스코 및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등 추가 배포
- 홍보 : 뉴욕 현지 언론사 연계 기획기사 배포 등

-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코로나19 대응에 모범 모델로 평가받고 있어 바이오·방역 기업에게는 해외진출의 적기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서울메이드 방역키트'에 바이오·방역 제품 외에 문화·디지털 제품을 포함시킨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수혜 분야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임.
- 다만, 해외로 제품이 배포되고 해외 언론사에서 홍보를 받게 되는 만큼 무상배포가 실제 구매로 연계될 수 있도록 배포지역의 선정부터 해외 언론사와의 협업까지 효과적인 추진 전략을 강구하여야 함.

## 다. 중소기업 단체협력 강화

(사업별설명서, 10쪽)

-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자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육성지원 사업 중 제조물배상 책임보험료(이하 “PL보험”) 지원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하 “공제기금”) 이차보전 지원에 4억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 < 중소기업 단체협력 강화 >

(단위 : 천원)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증액내역
3,865,000	4,265,000	400,000	■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0

- 서울시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단체들의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인 지원 사업에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중소기업중앙회에 14억원을 보조하였음.
  - 주요 보조사업은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3억원), 판로·마케팅 지원(2억 5천만원), 협동조합 역량강화 교육(2억 1천만원), 공제기금 이차보전 지원(2억원), 중소기업 PL보험 지원(1억원) 등임.
-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중앙회의 보조사업 중 중소기업 PL보험 지원, 공제기금 이차보전 지원이 수요 증가로 예산이 소진되어 추가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음.

## (1) 중소기업 PL보험 지원

- 중소기업 PL보험 지원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 PL단체보험<sup>5)</sup>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보험료 20%, 업체당 최대 10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임.
- 하지만, 매년 예산의 제약으로 신청대상 중 일부만 지원을 받고 나머지 인원은 배제되는 결과가 반복되고 있으며, 올해도 예산이 전액 소진될 예정임.

### < 최근 3년간 PL보험지원 >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소요예산	가입업체 수	지원업체 수
2018	100	812	262
2019	100	830	362
2020	100	900(예상)	369(예상)

- 한편, 「제조물책임법」에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조사에게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조업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음.

5) 제조물배상책임(Product Liability)보험 : 기업이 제조, 판매, 공급(수출입 등 유통)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임.

- 또한,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도 자국의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PL 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PL 보험 가입율은 낮은 수준임.
- 따라서, PL보험에 미가입한 중소기업의 경우 소비자의 피해보상이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도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PL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추정사업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리스크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2) 공제기금 이차보전 지원

-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sup>6)</sup>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도산을 막고 공동판매와 구매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제기금을 설치하고 운용과 관리를 중소기업중앙회에 맡기고 있음.

### < 중소기업공제기금 개요 >

- ▶ 목 적 : 중소기업이 상호부조정신에 따라 공제부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금을 대출
- ▶ 법적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8조~제114조
- ▶ 제도성격
  - 보험적 : 매월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대출사유 발생시 납부한 공제부금의 10배

-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8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자의 도산을 막고 공동 판매와 구매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한다.  
 제110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과 관리) ①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앙회가 운용·관리한다.  
 제111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등) ①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의 도산을 막기 위한 공제금의 대출
  2.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의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자금의 지원
  3. 그 밖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5. 제110조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관리

이내 대출	
-	저축적 : 공제부금 만기 이후 계약 유지 시 분기마다 장려금 지급, 공제계약 해지 시 이자 지급
▶	가입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모든 중소기업자
-	제조, 도·소매, 서비스 건설업 등 업종에 관계없이 가입(유흥업종 제외)
▶	재원조성
-	가입자의 납부 공제부금, 정부 등의 출연금, 기금 운용수익금
▶	공제부금
-	월액단위 : 10~100만원(10만원 단위),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	납부한도 : 1억원
▶	공제금 대출
-	대출자격 : 가입한 후 4회차(만 3개월) 이상 부금을 납부한 자
-	대출방식 : 부금내 대출, 부금외 대출(신용등급에 따른 한도·이율 차등적용)

- 공제기금의 재원은 중소기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정부 등의 출연금, 차입금, 기금 운용 수익금이며, 조성된 재원은 공제금의 대출, 공공구매 및 판매 사업 자금의 대출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 < 공제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조 성	정 부 출 연 금	1,400	1,400	1,400	1,400
	공 제 부 금	3,067	3,396	3,841	4,086
	운 용 수 익 등	225	182	181	170
	합 계	4,692	4,978	5,422	5,656
운 용 *	부도매출채권대출	70	46	49	30
	어 음 수 표 대 출	134	130	116	93
	단기운영자금대출	2,581	2,684	3,074	3,285
	합 계	2,785	2,860	3,239	3,408

\* 운용금액은 대출 잔액 기준임.

-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제기금 가입자에게 부도매출채권대출,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 자금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보조금으로 대출 이자의 일부(보전이율 어음·수표대출 1%, 단기운영자금대출 1.0%~3.0%)를 지원하고 있음.

### < 대출 종류 및 조건 >

대출종류	대출사유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부도매출채권 대출	거래상대방의 도산으로 받을어음, 가계수표 등 매출채권 회수 곤란 시	1~7배 이내 (담보 10배 이내)	무이자 (대손준비금 10% 공제)	3년 (6개월 거치, 30회 분납)
어음·수표 대출	상거래로 받은 상업어음 및 가계수표의 현금화가 필요한 경우	1~7배 이내 (담보 10배 이내)	연3.5%~8.38%	지급기일 (180일 이내)
단기운영 자금대출	경영상 일시적인 단기운 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1~3배 이내 (담보 10배 이내)	연3.5%~9.63%	1년~3년

\*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의 경우 개별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금리·한도 적용

\* 대출금 중도상환 시 수수료 없음

- 하지만, 공제기금의 이차보전지원은 재원의 한계로 극히 일부 대출  
자만 혜택을 받고 있고, 그마저도 건당 대출지원금액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지원대상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 < 중소기업 공제기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추진현황 >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소요예산	이차보전적용 대출건수	이차보전적용 대출금액
2018	180	320	19,000
2019	200	214	19,000
2020	200	191(예상)	19,100(예상)

- 따라서 공제기금 이차보전 지원을 확대하는 추경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별설명서, 19쪽)

- 코로나19로 인해 실업과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유지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적 일자리인 공공근로를 확대하고자 3,007억 4천 4백만원(국비 2,792억 1천 9백만원 포함)을 증액하려는 것임.

<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

(단위 : 천원)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증액내역
(x-) 55,262,040	(x279,219,000) 356,006,040	(x279,219,000) 300,744,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제근로자등보수 (x82,553,640) 91,726,600</li> <li>■ 사무관리비 (x5,089,086) 6,154,540</li> <li>■ 재료비 (x6,075,000) 6,750,000</li> <li>■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178,512,000) 188,347,000</li> <li>■ 공공운영비 (x14,760) 16,400</li> </ul>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대규모 실업사태가 현실화되면서 고용 충격 완화와 실업자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부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코로나극복을 위한 희망일자리사업에 1조 5,076억원(공공근로 인력 30만명)을 편성하였음.
- 희망일자리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과 최소 고용창출 인원을 배분해 지역의 고용 상황과 수요에 따라 사업을 설계하도록 하였고,

이번 서울시 추경예산안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반영되었음.

- 서울시는 지난 2월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으로 다중이용시설 집중방역 등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확대 사업을 실시 하면서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의 예산까지 당겨 집행하였음.
- 시와 투자출연기관 그리고 자치구로부터 일자리 수요를 조사해 발굴한 5개 유형·50,209개의 일자리에 6개월간 취약계층(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자,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할 계획임.

**<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 개요 >**

- ▶ 추진목표 : 약 50,209명
- ▶ 사업내용
  - (근로조건) 주15~30시간(※ 업무특성 고려 주 30시간 이상 근로 가능)
  - (근로기간) 5개월 이내('20.7.~12월)
  - (대 상) 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자, 청년 등 취약계층 우선 대상
  - (근무조건) 최저임금 적용
  - (사업내용) 생활방역 지원 등 5개 유형
- ▶ 소요예산 : 310,744백만원(국비 90% : 시·구비 10%)
  - 국비(279,219백만원) : 희망일자리사업 서울시 배정예정액
  - 시비( 21,525백만원) : 市 3차 추경사업에 반영
  - 구비( 10,000백만원) : 자치구별 '20년 예산으로 기 편성
- ※ 최종예산 및 사업은 국비확정에 따라 변동 가능

유 형 별	일자리수(개)	소요예산(백만원)
계	50,209	310,744
① 생활방역지원	11,767	68,763
② 민생경제 보호 및 활성화	14,707	75,762
③ 안전 및 재해예방	4,241	34,587
④ 돌봄 및 시설물 정비	18,776	124,830
⑤ 비대면 디지털기반 일자리 활성화	718	6,302
※ 공공일자리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	500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완화와 취약계층의 생계유지 기반 제공을 위해 추진된 희망일자리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부에서 예산과 고용인원을 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규모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예산 규모에 맞춘 불요불급한 일자리가 양산될 우려 또한 있음.
- 따라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공근로 사업의 효과가 체감될 수 있는 영역을 최대한 발굴하여 부실한 일자리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이 사업에는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고자 단기 일자리를 넘어 생산적 공공일자리인 비대면 디지털기반 일자리 718개(소요예산 63억 2백만원)를 포함하고 있음.

**< 비대면 디지털기반 일자리 현황 >**

사업명	업무내용	예산 (백만원)	고용 인력
안전한 골목길 정보 구축 사업	민간 포털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거리뷰 구축	1,290	100명
차량 저공해사업 및 운행제한 상담	저공해조치 및 운행제한 전화민원 대응과 안내	86	10명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비대면 안전점검원 운영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전화로 안전점검	363	40명
판독현황도 정확도 개선 사업	수치지형도와의 대조를 통한 판독현황도 개선	468	30명
북한 주요자료 아카이브 구축	북한 관련 동영상 자료의 체계적 정리 및 디지털화	2,598	240명
서울시 기록물 정리사업 추진	기록관 인수 기록물 목록 작성 및 관리	67	10명

격차 없는 기록정보 서비스 기반 구축	장애인 등을 위한 온라인리더 자료 준비, 부분공개 기록의 개인정보 마스킹 및 누적 기록물 정리	263	10명
지역사회온라인정보 플랫폼운영	지역사회의 생활방역체계와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한 로컬(지역)데이터 작성	288	25명
시민 데이터 수집단 운영	청년대상 도시데이터 수집 및 가공	540	200명
보행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접근성 지도 구축	보행약자 접근성 지도가 필요한 현장 조사 및 지도 정보 등록	339	33명

- 하지만, 생산적 공공일자리는 취지가 무색하게 단순 행정정보조나 안내 업무인 경우가 있으며, 전체 사업규모에 비해 예산과 고용 인력이 소규모라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함.
- 한편, 공공근로사업은 서울시의 노동정책 방향과 달리 생활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공공근로 일자리별 업무 난이도와 전문성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마. 서울형 뉴딜일자리 확대

(사업별설명서, 24쪽)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그린산업 분야에서 현장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117억 8천 2백만원(1천명)을 증액하고 있음.

#### < 서울형 뉴딜일자리 확대 >

(단위 : 천원)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증액내역
88,482,400	100,264,400	11,78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40,000</li> <li>■ 사무관리 204,000</li> <li>■ 민간경상사업보조 9,538,000</li> </ul>

- 서울시는 공공일자리로 구직자들에게 경험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민간의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을 돕고자, 2013년도부터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

**< 뉴딜일자리 사업 개요 >**

- ▶ 목적 : 미취업자들에게 전문적인 일경험 제공과 직무교육 및 취·창업 지원을 통해 민간일자리 연계촉진('13년부터 추진)
- ▶ 참여대상 :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 ▶ 근무조건 : 생활임금(시급 10,530원) 적용 월 최대 223만원 지급
- ▶ 참여기간 : 1인당 최대 23개월까지 가능
- ▶ '20년 목표 및 예산 : 총 4,600명 일자리 제공 목표, 88,482백만원

- 이번 추경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활성화가 예상되는 언택트(Untact) 산업육성 과정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일자리를 뉴딜일자리 사업과 연계하고자 디지털, 그린, SOC디지털화를 중점 분야로 추진할 계획임.

**< 추가경정예산 사업 개요 >**

- 사업규모 : 1,000명, 11,782백만원 (3차 추경 예산)

대상	공공부문 확대 (市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민간부문 확대 (민간기업맞춤형 뉴딜)
규모 및 예산	600명, 6,732백만원	400명, 5,050백만원

- 추진방식 : ① 본청·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대상  
              ② 민간협회(단체)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분야 시범사업 공모

- 중점 추진분야

분 야	추진방향
디지털 뉴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활용 기반 구축</li> <li>· 스마트도시 통신 인프라 조기 구축을 통한 민간고용 유도</li> <li>· 감염병 안심 비대면 인프라 구축 등 비대면 산업 육성</li> </ul>

그린 뉴딜	· 건물에너지 효율화, 태양광·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 신산업 활성화 기여하는 일자리 창출
SOC 디지털화	· 노후 기반시설 스마트 관리체계 도입으로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확대

⇒ 분야별 세부사업 및 규모 등은 소관 실·본부·국 수요조사 후 확정.  
그 외 지속가능한 뉴딜일자리 분야 추가발굴 추진

○ 추진일정

3차 추경반영 '20.6월	→	사업공모 '20.6월	→	사업선정 '20.7월	→	사업시행 '20.7월~
-------------------	---	----------------	---	----------------	---	-----------------

- 하지만, 추경 확정이후 서울시 자체 수요조사와 민간 공모를 통해 사업의 대상과 규모가 구체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계획상의 추진일정(6월 사업공모, 7월 사업선정·시행)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
- 뉴딜일자리 사업은 서울시의 대표 일자리 사업으로 예산 규모도 2015년 203억원에서 2019년 921억원으로 급격하게 확대되었으나, 저조한 취업연계 실적과 집행률을 계속 지적받아 2020년에는 사업 규모를 하향 조정하였음.

### < 최근 5년간 뉴딜일자리 사업 현황 >

(단위 : 명, %)

연 도	일자리 창출(명)		사업비	집행률
	목표	선발 인원		
2015	1,652	1,730	203억원	78.1
2016	2,342	2,160	251억원	85.7
2017	5,500	5,294	679억원	84.5
2018	5,405	5,092	856억원	91.3
2019	5,450	4,944	921억원	92.0

연 도	일자리 창출(명)		사업비	집행률
	목표	선발 인원		
2020	4,600	-	884억원	-

- 이런 상황에서 예산이 대폭 증가하게 되면, 추경 예산의 대규모 불용 뿐만 아니라, 기존의 뉴딜 사업도 관리 소홀로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요구됨.

바.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 (사업별설명서, 29쪽)

- 코로나19로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어 서울형 강소기업에 대한 근무환경개선금 확대 지원으로 민간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고자 11억 원을 증액하고 있음.

<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 >

(단위 : 천원)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증액내역
3,636,000	4,736,000	1,100,000	■ 민간경상사업보조 1,100,000

- 서울시는 우수한 중소기업에서 청년 인재의 채용을 확대하고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형 강소기업을 선정·지원해 왔음.

- 현재까지 500개의 서울형 강소기업을 지정하였고 2022년까지 1,000개로 확대할 계획임.
  -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 청년정규직 채용에 따른 근무환경개선금(1명당 1천만원, 최대 3명까지)<sup>7)</sup>, ▶ 유연근무 확대 포상(50개 선정, 최대 1천만원), ▶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최대 23개월, 기업당 3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이번 추경사업은 서울형 강소기업에 대한 근무환경개선금 규모를 확대해 고용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 신규 지정된 서울형 강소기업은 근무환경개선금 대상자가 3명에서 4명으로 확대되어 최대 6천만원(여성·취업지원 연계시 500만원 추가 포함)이 지원되며, 2년 후 재지정되면 추가적으로 2명까지 확대해 최대 9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됨.
  -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고 근무환경이 좋은 서울형 강소기업의 청년 고용을 촉진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그동안 강소기업 재지정에 특별한 지원이 없어 재지정을 포기하거나 소극적인 기업들이 일부 있었으나, 재지정 기업도 지원하게
- 
- <sup>7)</sup> 청년 정규직이 여성인 경우 300만원, 서울시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된 경우 200만원이 각각 추가 지원됨.



됨으로써 서울형 강소기업 제도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사. 서울창업허브 운영

(사업별설명서, 34쪽)

-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종합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00억원을 증액하고 있음.

#### < 서울창업허브 운영 >

(단위 : 천원)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증액내역
18,489,897	28,489,897	10,000,000	■ 민간위탁금 10,000,000

- 서울시는 ‘차세대 유망 스타트업 스케일업 전략(2020. 6.10)’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예비 유니콘기업<sup>8)</sup>을 육성하고자 경영 지원(기술인력 인건비 지원), 성장촉진(종합패키지 지원), 집중투자(혁신성장 펀드 확대 지원)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8) 예비유니콘 기업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으로 성장이 가능한 기업가치 1,000억 이상 기업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예비유니콘 기업 27개 중 20개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음(유니콘 기업은 11개 중 9개가 서울 소재).

- 100개의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종합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기업의 특성에 따라 지원내용(기술개발·제품화, 인건비·판로·지식재산권 출원·등록)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음.

< 유망 스타트업 성장촉진 종합 패키지 지원 개요 >

- 지원대상 : 시리즈 A 단계 100개사 지원
- 소요예산 : 100억원(100백만원 X 100개사)
- 지원내용 : 기업 특성에 따른 맞춤형·선택형 ‘기업 친화적’ 지원
  - (사업개발) 대학·대기업 등 기술R&D, 사업고도화·제품화·양산 사업비 등
    - ▶ 기술성숙도 7단계(실용화 단계) 이상 기술개발에 대해 지원
  - (기술인력) 고용유지 및 신규채용 등 기술인력 인건비 지원 등
  - (판로개척) 아마존(미)·라쿠텐(일) 등 온라인플랫폼 입점, 홍보·유통분야 등
  - (기술획득)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해외현지 IR·엑셀러레이팅 참가 등
- 선발방법 : 해외 AC·VC로부터 기 투자유치한 기업 우선 선발·지원
  - 1단계 : 非바이오 분야 70개사('20.7~8월)
  - 2단계 : 바이오 분야 30개사('20.9월)

- 이 사업은 자본구조가 취약한 유망 스타트업이 코로나19로 도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기업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1억원의 예산범위에서 지원 유형을 선택할 수 있어 효과적인 맞춤형 기업 지원 방식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 창업시설에 입주를 유도하는 등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계획으로 유망 스타트업을 위한 선순환적 창업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이번에 지원받는 스타트업들은 사업화 단계의 유망기업이므로 서울시의 지원을 통해 수익이 창출되는 경우에 창업 초기기업들에 대한 지원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투자 지원대상인 ‘시리즈 A)기업’의 기준과 규모에 대해 국가별·산업별로 차이가 있고, 서울시 또한 별도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혼란이 우려되므로 개념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투자규모별 창업기업 단계 >

구 분	시드(Seed)	시리즈 A	시리즈 B
서울시	3천만원~1억원 미만	2억원~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일반	1억원~20억원	20억원~150억원	70억원~100억원

아. 스타트업 기술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별설명서, 43쪽)

- 코로나19 이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의료, 비대면 분야의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고용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타트업 기술개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505억원을 신규 편성 하였음.

---

9) Seed 단계의 투자를 통해 아이디어를 제품이나 서비스로 구체화하고 시장이 의미있게 존재하는 것이 검증되었을 때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받는 투자

## < 스타트업 기술인력 인건비 지원 >

(단위 : 천원)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증액내역
-	50,500,000	50,500,000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500,000

-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시장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바이오·의료, 비대면분야의 산업은 확대되고 있어 이들 유망분야에 대한 지원과 기술개발인력의 고용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망산업의 스타트업 기술인력 인건비 지원을 포함한 ‘차세대 유망 스타트업 스케일업 전략’을 발표(2020. 6.10)했음.

### < 스타트업 기술인력 인건비 지원 개요 >

- 지원대상 : 시리즈 A 단계 100개사 지원
  - 소요예산 : 100억원(100백만원 X 100개사)
  - 추진계획 : 1만명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 바이오·의료, 비대면 분야 기술 스타트업 (시리즈 A 단계 이상)
- | 구분 | 바이오·의료                             | 비대면 H/W                    | 비대면 S/W                     |
|----|------------------------------------|----------------------------|-----------------------------|
| 분야 | 신약개발, 진단의료기기, 헬스케어                 | AI, 클라우드, 5G, 온라인플랫폼, 블록체인 | 핀테크, 가상·증강현실, 지능형 반도체, 빅데이터 |
| 조건 | 3년 이내 투자유치 누적액 1~50억 이내+연매출 30억 이내 |                            |                             |
- ▶기준 : 법인 정관·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업태
  - ▶지원제외 : 고용노동부 등 정부와 서울시의 인건비 관련 지원사업의 수혜기간과 중복되는 기업
  - 지원규모 : 고용유지 및 신규채용 스타트업에 1만명의 인건비 지급
    - 지원요건 : 정규 기술개발인력 고용유지 및 신규채용 시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7명까지, 5개월간 지원

기업규모	10인 미만	10~20인 미만	20인 이상
지원인원	3명	5명	7명

- 지원금액 : 1인당 월 1백만원 (스타트업 자부담 등 노력 고려)

- 산출내역 : 1백만원 × 10,000명 × 5개월 = 50,000백만원

- 이 사업은 코로나19 고용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단계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스타트업으로 우수한 기술개발인력의 유입을 촉진시켜 창업생태계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지원대상을 바이오·의료, 비대면 분야 기술 스타트업으로 제한하고 기업 요건을 투자누적액(3년 이내 1억~50억원 이하)과 매출액(연 30억원 이하)으로 정한 것에 대한 근거와 타당성이 부족해 보임.
  - 비대면 분야는 서비스나 제품의 사용 방식에 따라 결정되므로 산업 분야로 특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투자누적액과 매출액은 창업초기기업을 제외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나,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
- 또한, 기술개발인력 지원 규모인 1만명 역시 기초 조사없이 산출되었으며, 신규채용 외에 고용유지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과도한 지원 요구로 인해 유망 스타트업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유망 분야와 기업 조건 등 지원 대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서울시 보고서<sup>10)</sup>에 따르면, 창업기업의 연구·기술직 필요인력 수요를 초기와 고도성장기 기업을 합해 9,374명으로 산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수치는 모든 업종을 포함한 것이고, 이 사업에서는 신규 채용 외에 고용유지까지 포함하고 있어 정확한 산출 근거라 할 수 없음.

< 서울시 기술기반 창업기업 실태조사 보고서 >

- 모집단 : 서울시 소재 기술기반 창업기업으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표본규모 : 6,152개
- 조사방법 : 개별면접조사 및 Fax/E-mail
- 연구·기술직 필요인력 수요

기업성장단계	창업기	초기성장기	고도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기업(개)	1,093	3,254	798	490	45
필요인력(명)	2,59	7,503	1,871	897	69

**자. 서울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

(사업별설명서, 14쪽)

- 코로나19로 비대면 금융환경이 더욱 활성화됨에 따라 간편결제·보안·인슈어테크 등 기술수요가 증가한 핀테크기업의 입주공간을 추가로 확대 조성하고자 임차료 23억 3천 6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10) 서울시 기술기반 창업기업 실태조사 보고서(2018년 기준), 경제정책과, 2020년.

## <서울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7,245,868	4,909,868	2,336,000
사무관리비	5,945,868	3,609,868	2,336,000
민간위탁금	1,300,000	1,300,000	0

- 서울시는 여의도 일대(3.98km<sup>2</sup>)를 국제 금융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건립,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 외국인 친화적인 글로벌 생활환경 조성,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운영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서울핀테크랩은 위워크 여의도역점 총 4개층(4·5·6·8)에 핀테크 기업 70개 사(국내 46, 해외 24)가 입주해 있음.
- 이번 추경안은 서울핀테크랩의 입주 건물에 유희공간 2개 층(17층, 19층)을 추가로 확보하여 입주기업에게 제공하려는 것임.
- 지난 2년간 서울핀테크랩 입주 90개 기업 모집에 315개 기업이 신청해 평균 3.5: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기업 입주 수요가 높음.
- 또한, 지난해 입주기업들은 투자유치 308억원, 매출액 276억원, 고용 창출 125명 등의 성과를 달성한 바 있음.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모바일의 급속한 확산, 소비자의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핀테크가 금융산업 혁신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핀테크와 같은 혁신금융서비스 기업의 출현을 유도하고 성장·발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임차계약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체결하고, 임차료 지급도 임차가 완료된 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입주비용 할인, 임대보증금 면제 등(약 3억 2천 8백만원 절감)의 혜택을 위해 임대사업자와 1년(2020. 10. 1~2021. 9.30) 임대료 선지급을 계획한 것은 관련 법령을 위반해 회계연도 구분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일 수 있음.
- 임대차 계약을 포함해 서울핀테크랩의 운영에 있어 관련 법령 등으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임.

**차.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신규) (사업별설명서 46쪽)**

- 코로나19로 인해 친환경농산물 소비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과 임산부 건강증진 목적의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에 서울시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 35억원(국비 17억 5천만원 포함)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민간경상사업보조	(x1,750) 3,500	(x-) 0	(x1,750) 3,500

- 이 사업은 정부의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되면서 시범사업 예산 (91억원)이 올해 처음 반영되었고,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지원 사업이 확대 추진(67억원)되면서 서울시가 추가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음.<sup>11)</sup>
- 서울시는 재정상황과 공급기간(연 24회) 등을 고려해 올해 집행 가능분(6개월)만 추경으로 편성하고, 내년도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임.
- 지원대상은 18,230명으로 연간 출생아수가 7~8% 감소 추세에 있고 사업 환경이 유사한 부천시(32%)를 고려해 산출하였음.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규모: 35억만원(국비(예비비) 17억 5천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정 예산 지침(2020. 4. 7. 농림축산식품부)</li> <li>- 지원형태: 국비 40%, 지방비 40%*, 수혜자 부담 20%(주문 시)</li> <li>- 지방비 분담은 광역시·도 30%, 시·군·구 70%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li> </ul> </li> <li>○ 사업기간: 2020. 6.~ 2020. 12.</li> <li>○ 지원한도: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원 상당 지원(12개월, 24회 이내)</li> </ul>
------------------------------------------------------------------------------------------------------------------------------------------------------------------------------------------------------------------------------------------------------------------------------------------------------------------------------------------------------------------------------------------------------------

11)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1차 시범지역 선정(2019.10)시 서울시는 참여하지 않았고, 대전, 제주 2곳의 광역자치단체와 14곳의 기초자치단체가 선정된 바 있으며, 시범사업 지역 추가 접수를 통해 광역은 서울시 1곳과 기초 9곳이 추가 선정된 바 있음(2020. 3.27. 농림축산식품부).

- 1회 공급 한도: 30,000원 이상 60,000원 이하(6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 지원대상: 2020.1.1. 이후 임신 또는 출산이 확인된 임산부(18,230명)

○ 운영체계

서울시	자치구	공급업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진계획 수립</li> <li>◦사업 홍보</li> <li>◦공급업체 선정</li> <li>◦안전성검사 등 모니터링</li> <li>◦보조금 교부 및 정산</li> <li>◦사업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수행 및 홍보</li> <li>◦신청접수 및 자격 확인</li> <li>◦고유번호 발급</li> <li>◦사업관리</li> <li>◦보조금 집행</li> <li>◦만족도 조사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계획 수립</li> <li>◦온라인몰 운영 (통합몰 구축전까지)</li> <li>◦꾸러미 공급</li> <li>◦월별 실적정산 및 보조금 청구</li> <li>◦민원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홍보컨텐츠 제작</li> <li>◦통합온라인쇼핑몰 운영 ('20년 8월 이후)</li> </ul>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연기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매출이 급감하고, 임산부 등의 영양 공급 활동이 위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추경사업은 바람직한 대응 조치로 보임.

○ 다만, 실제 출생아수<sup>12)</sup> 대비 지원대상이 1/3 수준에 불과해 신청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지원 신청을 주민센터에 서면(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신청서 등)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임산부 등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

- 서울시는 지원 신청 접수를 위한 정부 지침이 별도로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서울농부포털” 을 활용하여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임.

12) 2019년 서울시 출생아수는 53,700명으로 18,239명은 전년도 출생아수 대비 33.9% 수준임.

- 또한, 자치구 분담비율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2021년도 사업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고, 공급업체와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서 지연이 우려되므로 신속한 사업추진과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임대료·운영비 등의 지원

·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 지원	(사업별설명서, 49쪽)
· 서울무역전시장 운영	(사업별설명서, 62쪽)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공영도매시장 내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사용료 감면분과 상반기 SETEC 미운영에 따른 진흥원의 운영적자를 보전하고자 전출금(40억 2천 2백만원)과 민간위탁금(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음.

<공영도매시장, 서울무역전시장 지원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명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 지원	공사·공단	(x-)	(x-)	(x-)
	경상전출금	4,021,657	0	4,021,657
서울무역전시장 운영	민간위탁금	(x-)	(x-)	(x-)
		1,000,000	0	1,000,000

-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가 현실화되자 임대료 인하 분위기를 민간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시유재산과 투자·출연기관 재산에 대한 사용료와 임대료 등을 한시적(2월~7월)으로

50% 인하하는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 을 추진하였음.

###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 공통기준 >

- 지원대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
  - 소매업 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
  -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등(「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 지원기간: 6개월
  - 임대료 및 공용 관리비 감면: 2020. 2.~2020. 7.
  - 2월 임대료·관리비는 소급하여 감면 적용(납부분 반환)
  - 임대료 납부 유예: 2020. 3.~2020. 8.

- 이에 따라 농수산식품공사는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과 임대상인 등이 사용 중인 시설 2,834개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6개월 분의 임대료 40억 2천 2백만원을 감면하였고, 그 손실금을 지원하려는 것임.

###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임대료 감면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약현황(개소)		감면금액	비 고
			계약시설	감면대상		
합 계			3,981	2,834	4,021,657	※공사예산 지원 제외
1	가락물운영팀	임 대 료	1,607	1,126	2,434,009	서울시 지원 (6개월,50%감면)
2	도매권임대팀	임 대 료	308	156	546,382	"
3	사회공헌팀	임 대 료	25	11	7,077	"
4	업무지원팀	임 대 료	73	28	63,987	"
5	농 산 팀	시설사용료	1,061	664	483,993	"
6	수 산 팀	시설사용료	412	381	136,012	"
7	유통관리팀	시설사용료	294	280	186,560	"
8	양곡사업소	시설사용료	140	134	100,973	"
		임 대 료	48	42	62,664	"
9	급식안전팀	임 대 료	13	12	15,244	공사예산 지원 (3개월,50%감면)

- 다만, 전년 동기 대비 거래물량에 큰 변동이 없는<sup>13)</sup> 상황에서 중도 매인 등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했는지,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중소기업 전문전시 시설인 서울무역전시장(SETEC)은 2005년부터 진흥원이 수익창출형 위탁(비예산)방식으로 운영·관리 중이며, 최근 3년간 수입평균액이 31억 5천만원 규모에 이르고 있음.

### <최근 3년간 SETEC 수입과 시 반납액>

(단위 : 천원)

연도별	수입액(a)	부가세환급액(b)	지출액(c)	시 반납액(a+b-c)
2017년	2,951,239	180,530	2,529,008	602,761
2018년	3,303,044	219,170	2,949,988	572,226
2019년	3,195,529	223,030	3,233,865	184,694

-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현실화되면서 지난 2월부터 공공다중 이용시설인 서울무역전시장의 운영이 중단되었음.
  - 이로 인해 서울무역전시장의 상반기 수입 예상액(18억 2천 8백만원) 대비 실제 수입은 3억 8천 7백만원에 불과해 14억 2천 5백만원의 손실 발생이 예상되고 있음.

13) 가락·강서·양곡시장의 3월말 거래물량은 전년동기 683천톤 대비 8천톤(1.2%) 감소한 675천톤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미미함(2020. 3.31 실적기준, 서울농수산물공사).

- 진흥원은 상반기 부족 자금을 기존 수익금과 개최예정 전시 행사의 계약금과 중도금(10억 5천만원)으로 처리하였음.

### <서울무역전시장 2020년도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당초 수입 목표			변경 수입 목표			손실예상액 (a-b)
	상반기	하반기	합계(a)	상반기	하반기	합계(b)	
총 계	1,828,000	1,572,000	3,400,000	<b>387,077</b>	1,587,923	1,975,000	<b>1,425,000</b>
전시장	1,404,000	1,147,000	2,551,000	284,082	1,147,923	1,432,005	1,118,995
주차장	424,000	425,000	849,000	102,995	440,000	542,995	306,005

- 손실금 중 서울무역전시장의 고정경비인 10억원(시설관리용역, 수도 광열비)은 서울시가 지원하고, 나머지 손실액 4억 2천 5백만원은 진흥원의 자체 운영비 절감 노력으로 해소할 계획임.
-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고, 하반기 재유행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단계적 개관과 운영비 절감의 자구 노력과 함께 추가적인 손실금 보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타.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

(사업별설명서 52쪽)

-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조성 중인 양재 R&D 혁신지구 내 입주 기업과 서울 소재 AI 관련 기업, 대학교, 공공기관 등에 고성능 컴퓨팅<sup>14)</sup>자원을 지원하기 위해 장비 임차 비용 4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음.
- 이는 AI 개발 경쟁력을 좌우하는 다량의 데이터를 고속 처리하는 고성능 컴퓨팅 자원 확보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AI 기업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한 것임.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 예산안>

(단위 : 천원)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증액내역
14,932,162	15,382,162	450,000	■ 민간위탁금 450,000

- 서울시는 민간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임차하여 지원 속도(10TF, 20TF, 40TF)별로 총 70개 기관에 3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임.

14) 고성능 컴퓨팅(HPC : High Performance Computing) : AI 가속화기,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자원을 통해 대용량 데이터, 복잡한 연산을 고속 처리하는 컴퓨팅 환경을 말함.

## <AI 기업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지원 계획>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AI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 대학교(원), 공공기관
- 지원규모 : 70개 기관(10TF 30개 / 20TF 20개 / 40TF 20개)
  - ※ FLOPS(floating-point operations per second) : 초당 연산 횟수 / TF(TeraFlops) : 초당 1조번 연산
- 지원내용 : (H/W) 기관당 GPU 서버 1식, (S/W) AI 개발환경
  - AI 가속화기 : 기관별 3가지 속도 중 선택 지원(10TF / 20TF / 40TF)
    - ▶ 지원 개시 후 사용량, 사업계획 변경 등 상황에 맞춰 지원속도 탄력 조정(월별)
  - 개발환경 : 운영체제, AI 개발 프레임워크\*, 개발언어 및 데이터 저장공간
- 지원방식 : 민간의 GPU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을 임대하여 제공
  - 공모를 통해 공급자(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와 지원대상(기업·대학 등) 기관 선정
- 지원기간 : '20년 3개월(10~12월) ※ '21년부터 12개월 지원

-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은 2019년도부터('19년 200개사, '20년 800개사)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인공지능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사업으로 사업지원 기간이 단기(10개월)에 그치고 있음.
-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로 머신러닝<sup>15)</sup>과 딥러닝<sup>16)</sup>을 실시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팅 자원이 필수적이란 점에서 자금이 풍부하지 않아 자체 인프라 확보가 어려운 스타트업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성능 컴퓨팅 지원은 필수 수요라 할 수 있음.
- 다만, 현재 계획대로 사업 지원 대상을 서울소재 AI관련 스타트업과

15)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 인공지능 연구 분야 중 하나로, 인간의 학습 능력과 같은 기능을 컴퓨터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기술 및 기법을 말하며, 문자 인식, 얼굴 인식, 자동 번역 등의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음.

16) 딥러닝(Deep Learning) : 다층구조 형태의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는 머신 러닝의 한 분야로, 다량의 데이터로부터 높은 수준의 추상화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기법임.



중소기업, 대학교, 공공기관 등으로 폭넓게 규정할 경우에는 모집 공고와 선정, 지원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양재 R&D 혁신 지구와의 연계성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양재 R&D 혁신지구의 입주기업들로 한정해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그 성과를 분석해 서울 전역의 AI 스타트업으로 확산시키는 단계별 추진 전략이 필요함.
- 한편, 입주공간 확대를 위해 편성한 예산(152억 9천 9백만원)이 민간 건물 임차의 어려움으로 대규모 불용이 예상되므로 제2회 추경 감액분(3억 6천 7백만원) 외에 추가적인 삭감의 여지가 있음.

**파. 스마트앵커 조성(개봉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별설명서 56쪽)**

- 개봉 메이커 스페이스<sup>17)</sup> 조성 사업은 기부채납 시설<sup>18)</sup>인 개봉동 임대 산업시설을 이용하여 제조공정 혁신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2억 2천 5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스마트앵커 조성(개봉 메이커 스페이스) >**

(단위 : 천원)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증액내역
2,311,880	2,536,880	225,000	■ 공공운영비 225,000

17) 메이커 스페이스는 아이디어 구현에 필요한 3D프린터, 레이저커터 등의 장비를 갖춘 창작·창업지원 공간을 말함.

18) 서울개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구성에 따른 용적률 완화 시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임대산업시설을 서울시에 기부채납 한 것임(구로구 개봉동 353-19번지 일원).

- 이번 추경안은 스마트앵커 조성<sup>19)</sup> 활성화 개선방안의 일환에서 기부채납으로 확보한 임대산업시설을 메이커 스페이스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관리비용을 편성하였음.
- 2020년 7월 준공예정인 개봉동 임대산업시설의 시설물 인수와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해 용역비(1억 7천 5백만원)와 공공요금 등(5천만원)으로 구성됨.
- 개봉 메이커 스페이스는 지상 2개층(3~4층)에 기업입주 공간과 메이커 공간, 기업 간 협업을 위한 공유활동 공간 등으로 운영될 계획임.

### 〈개봉동 임대산업시설 개요〉

○ 시설개요

- 위 치 : 구로구 개봉동 353-19번지
- 규 모 : 지하2층, 지상 6층  
(연면적 4,872㎡)
- 용 도 : 공장(1~4층), 일반업무시설  
(5~6층)
- 주 차 : 31대
- 준 공 : 2020. 7.(예정)



○ 활용계획

19) 스마트앵커 조성 사업은 도심제조업 침체 극복을 위해 현대화된 작업환경과 ‘기획-생산-유통’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7년 사업대상지 선정 이후 공사 착공에 들어간 사업장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임. 서울시는 스마트앵커 시설 당 약 160억원(시비 20%, 국비 20%, 민자 60%)을 투입하여 총 20개소(연 4~6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6개소(중랑 봉제, 성동 수제화, 중구 인쇄, 구로 기계금속, 마포 디자인출판, 중구 봉제)가 선정되어 있음.

운영주체	운영내용	운영공간	운영방법	운영기간
구로구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입주	지상 1~2층	직영	2020.7.~
도시제조업 거점반	메이커스페이스(전문랩, 제품인증 입주공간)	지상 3~4층	2021년 위탁운영 (2020년 시설관리용역)	
사회적경제 담당관	사회적경제기업 입주 및 지원시설	지상 5~6층	위탁운영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조성된 메이커 스페이스는 2018년 65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총 128개소가 전국에 조성되어 있음.
- 총 사업비의 70%(일반형의 경우 80%) 범위에서 공간 인테리어, 장비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전문형 15억원, 일반형 1억 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현재 서울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메이커 스페이스 24개소 (전문형 2개소, 일반형 22개소)와 서울시가 지원하는 메이커 스페이스 8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 <서울시 지원 메이커 스페이스 현황>

시설 명칭	주요기능	소 재	운영기관
디지털대장간	· 시제품 제작 교육 제공 · 홍보를 통한 창업문화 확산	용산구	경제정책실
성수 메이커 스페이스	· 메이커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초 장비교육, 3D모델링 체험)	성동구	서울산업진흥원
상상공작소 (개포혁신파크 내)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시제품제작 지원 등 · 각종 키트를 활용한 DIY 교육, 제작 후 창업연계를 위한 멘토링	강남구	경제정책실
성북시제품제작소	· 장비사용법 및 키트활용 교육 · 지역 창업 커뮤니티 활성화	성북구	성북구
메이커 스페이스 G램프	· G밸리 제조 메이커 시제품 제작지원 · 전문가 대상 메이킹 워크숍 개최 · 상주 전문인력 가공·컨설팅 지원	금천구	서울산업진흥원

시설 명칭	주요기능	소 재	운영기관
이노베이션 팹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팹랩 아시아 네트워크 컨퍼런스 개최</li> <li>· 팹시티(Fab City) 협의체 운영, 기획 및 공모 프로젝트 등</li> <li>· 팹랩 시설장비 관리 : 팹랩 장비 유지 보수, 신규 공구 및 소프트웨어 구매</li> </ul>	은평구	서울혁신기획관
스마트시티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작품제작소 운영</li> <li>· 스마트시티 제품상용화 지원</li> <li>· 스마트시티 전문개발자 교육</li> </ul>	구로구	스마트도시정책관
세운 메이커스큐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자 입주공간 및 공유공간 지원</li> <li>· 전자박물관 등 기술문화공간 조성</li> <li>· 세운 내·외부 기술인 네트워크 운영</li> </ul>	종로구	도시재생실

- 그러나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는 사업 부서별로 소관 운영기관이 상이하고, 통합 관리하는 부서가 부재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개봉 메이커 스페이스는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가는 다른 운용 공간(구로 기업 입주공간, 사회적기업 입주 지원시설)과는 달리 조성비용 없이 관리비용(용역비와 공공요금 등)만 편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메이커 공간 역할 수행이 어려움.
- 또한, 인근에 메이커스페이스 G캠프(금천구 가산동) 등이 운영 중임에 따라 시설별 역할 분담과 차별화가 이뤄질 필요가 있음.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성만	02-2180-8055
이시우	02-2180-8056